

## 15세기 조선통보 다시 생각하기: 화폐주조이익권을 중심으로

전 성 호\*

본 논문은 15세기 조선왕조(1392~1910)에서 주조된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중심으로 동시대 중국의 명나라와 조선왕조가 공통으로 추구한 '유교국가'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가 화폐주조이익권(seigniorage)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를 조선통보의 액면 가치와 내재적 가치, 그리고 투입주조 비용과의 차이를 가지고 분석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 주전된 조선통보를 중심으로 한국 고전문헌 속의 주전 기록을 찾아 분석하고 금속화폐의 성분을 분석한 수량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화폐사 연구에서 조선통보만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규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나라와 일본 무로마치 시대 악화 유통을 조선과 비교하여 조선은 상대적으로 15세기 동안 명목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큰 불량 주화는 발행하지 않았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왕조가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유지의 불변의 법칙인 안정적인 통화 기준을 모범적으로 확립하였음을 규명하고 기준 중량 이하의 화폐주조이익권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 특히 15세기 세종 시대는 사기와 위조의 시도가 한 번도 없었고 그레샴의 법칙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청으로 교체된 명나라와 달리 조선왕조는 지속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제시한다.

핵심주제어: 그레샴의 법칙, 화폐주조(이익)권, 유학사상, 동전, 세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2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교수, 전화: (031)-730-8175, E-mail: mingoo@aks.ac.kr  
논문투고일: 2023. 10. 30 수정일: 2023. 12. 12 게재확정일: 2024. 3. 21

## I. 조선통보 발행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배경

오늘날 각국의 화폐제도와 역사는 비교경제체제론이나 국제경제사학 분야에서 일찍이 주목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15세기 발행된 조선통보에 관한 주전 기록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애쉬몰리안(Ashmolean) 박물관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츠 윌리엄(Fitzwilliam) 박물관에 소장된 실물 조선통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술 속에 남아 있는 조선통보, 그리고 19세기 개항기 외지인들의 눈에 새겨진 조선통보 기술을 상호 교차 분석하고 동 시대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화폐와 비교하여 조선왕조 화폐제도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조선통보에 대한 국내 경제사학계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 소수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조선통보는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더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일본 소장 자료를 이용한 연구인 이정수(2000), 강형태(2004)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정수는 1996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159종, 320만 개의 주화가 발굴되었고 북송(北宋)의 주화 다음으로 조선통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주목하여 15세기까지 조선-일본 무역에서 조선통보가 결제수단으로 기능한 것을 규명하였다.<sup>1)</sup> 2004년 강형태(외 3인)는 조선통보의 주조원료와 원료 산지와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는 1423년에 주조된 조선통보 2점을 입수하여 원자흡수분광분석법 및 중성자방사화분석법으로 모두 9종의 성분 함량을 찾아내고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는 바 있다.<sup>2)</sup>

다른 한편으로 조선통보에 대한 국내 연구보다 서양 외지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통보에 대한 서술 또한 흥미롭다. 19~20세기 영국 왕립학회의 저널 가운데 조선통보에 대한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의 인식과 다른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다. 화폐수집가이자 19세기 후반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회원으로 조선에 온 이히하라(M. Ichihara)는 조선통보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와 동양 사회의 매력을 연관시켜 조선통보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화폐수집가가 완수해야 할 책무라고 서술한 바 있다.<sup>3)</sup> 그는 유럽에서 경험하지 못한 화폐의 본질과 주조연대에 대해서 인상 깊은 서술을 남기었다. 그는 조선통보는 국가가 주조한 법정 화폐이면서도 상품화폐의 특징, 즉 화폐의 액면 가치가 내재적 가치에 의해 통제되

1) 李正守(2000).

2) 강형태·김규호·허우영·평미양광(2004).

3) M. Ichihara(1913), p. 45; Hidenori Sukawa(2009), pp. 65~85.

고, 재료의 생산량에 따라 화폐 유통량이 결정되어 국가 권력의 특권인 화폐주조 이익권(seigniorage)에 부합하지 않은 화폐라는 서술을 남긴다.<sup>4)</sup> 또한 그는 조선의 토착 화폐 연구자들이 조선통보를 예수 탄생보다 1,000년 전 고조선 때의 화폐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학자 역시 조선통보를 고조선 시대에 주전한 동전이라는 시각을 견지한다.<sup>5)</sup> 본 논문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조선통보 평가를 대조 분석하여 서양과 일본 등 외지인들의 눈에 비추어진 조선통보 주조 연대 논의의 의문점들을 규명한다.

조선 후기 쌀값 변동과 화폐 주전량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전성호(2007, 2014)는 조선의 주전은 기후 재난이 발생한 긴박한 시기에 진흥청을 중심으로 기근 구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696년, 1720~1721년, 1731~1733년, 1742년, 1750년대 기근 구제책으로 변방 지역의 화폐유통 금지를 풀어버린 사례이다. 숙종 시대 처음 발행된 상평통보도 1678년에 발행되지만 1696년 변경지역 관북지방의 대기근 대책으로 대규모로 발행되어 나온 것이다. 이때 상평통보의 기준 함량 등식이었던 1문=2전5푼(3.75grams)을 유지하지만 1731~1733년 대기근 때에는 1문=2전5푼(3.75grams)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1문=2전(3.00grams)으로 그 함량을 줄여 공급하는 특징을 제시하였다.<sup>6)</sup>

전성호(2007)는 조선 시대 화폐 발행 시기와 미가 변동 시기 그리고 기후 변화의 시기가 서로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어 화폐 발행은 중농주의 국가를 지향한 조선왕조의 자연재해 극복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최근에 발굴된 이재 황윤석의 저작에서도 인용할 수 있다.<sup>7)</sup> 또한 전성호(2014, 2023)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애쉬몰리안 박물관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츠윌리엄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왕조 화폐 조선통보를 국내에 소개하여 조선통보의 함량과 구성 비율이 고려 시대 동전 함량과 성분 구성 비율이 일치하는 것을 제시하여 조선통보는 고려 시대 동전을 계승한 화폐라는 사실을 규명하였고, 일본에서 출토된 조선통보와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8)</sup> 전성호(2007,

4) Hidenori Sukawa(2009), pp. 65~85.

5) 松島惇·黑井治徳(1920).

6) 전성호(2007), pp. 118~122; Jun Seong Ho(2014), pp. 259~280.

7) 이재 황윤석의 견해를 따르면 조선 후기 0.15\*2.5=3.75grams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0.15\*2.4=3.6grams으로 줄어든다. 頤齋遺藁卷之二十五, 雜著: 肅宗丙子大饑. 崔錫鼎始建請大行. 自咸鏡平安二界江邊七邑全羅海中濟州三邑嚴禁外. 餘皆一切行使. 錢約重二錢四分. 大典通編二錢五分. 今磨減一分. 徑一寸五分強. 厚一分強. 其始行也.

8) 옥스퍼드 대학(<https://hcr.ashmus.ox.ac.uk/coin>), 케임브리지 대학(<http://www.fitzmuseum.cam.ac.uk/dept/coins/>). Jun Seong Ho(2014).

2014)가 주목한 것처럼 영국 양 대학의 박물관은 전 세계 주요 문명국가에서 발행된 상당한 양의 지폐와 동전을 수집하였는데 그 가운데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화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국 동전이 중국 동전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애쉬몰린 박물관의 동아시아 컬렉션은 약 15,000개의 중국 동전, 약 3,000개의 한국 동전, 1,600개의 일본 동전, 약 1,000개 베트남 동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영국 박물관 소장 한국 동전 자료의 현지 조사와 함께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 출판된 서적 가운데 화폐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소장 실물과 문헌 기록을 비교 대조하여 한국 화폐금융사의 객관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 실학자, 19세기 영국 왕립학회원,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한 연구를 주전 연대 추정과 함께 현대 경제 문제인 인플레이션과 연결시키면 매우 주목할만한 화폐제도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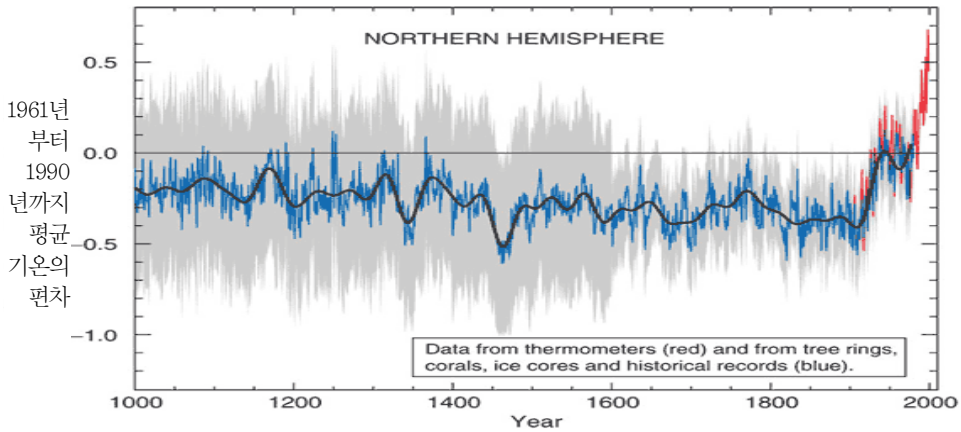
그러면 조선통보가 발행된 14~15세기는 세계사에서 어떠한 시대로 인식되는가? 과연 기후 변동과 화폐 발행과는 일정한 연관이 있는가? 먼저 동시대 가장 큰 변화는 광대한 몽골제국의 붕괴이다. 다음으로 유럽을 휩쓸은 흑사병(1346~1671)의 시대와 연결된다. 몽골제국의 붕괴와 흑사병 시대는 하나로 통합된 유라시안 대륙이 유럽과 동아시아로 분리되어 서쪽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와 이탈리아 반도가 대서양 연안의 새로운 국가들과 해외 무역과 모험을 모색하기 시작한 ‘대항해 시대’(The Great Voyage Era)가 열린다. 대항해 시대는 동시에 ‘大惡貨의 시대’(The Great Debasement Era)로 연결되면서 이른바 그레샴의 법칙<sup>9)</sup> 등장의 사회·경제·역사적 배경을 이룬다. 이와 반면에 동쪽에서는 개방형 통상국가 모델을 이룬 송나라와 고려가 해체되고 유학 사상에 기반한 중농주의 폐쇄국가<sup>10)</sup>가 출범하면서 적어도 조선왕조와 중국 명나라는 그레샴의 법칙을 등장시킨 유럽과 달리 비교적 양질의 화폐를 발행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면 기후변동과 조선통보 발행의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9)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은 귀금속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를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동일한 명목적 가치를 액면에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때 귀금속 소재 가치가 높은 양질의 주전화폐(Good Coinage)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내재적 가치가 낮은 화폐(Bad Coinage)만 유통되는 현상이다. 조선 시대 내내 양질의 화폐인 조선통보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0) 명나라와 조선은 지방 농촌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중농주의 국가를 일본은 Sakoku(鎖國: 1603~1868)로 상징되는 대외 폐쇄 모델을 구축한 시기라는 점에서 서구 유럽과 다른 경로를 밟는다.

〈그림 1〉 지난 천년의 세월 북반구 기후 변화



주: 1) 15세기 중후반 최저점을 나타낸다.

2) 빨간색 그래프는 온도계의 자료, 파란색 그래프는 나무 고리, 산호, 얼음 코어 및 역사적 기록을 나타냄.

자료: Mann *et al.*(1998, 2012).

〈그림 1〉을 산출한 연구는 지구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지난 세계 기후 변화의 역사 연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가 이전 900년에 비해 유난히 따뜻했음을 보여 주는 ‘하키 스틱’(hockey stick) 그래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키 스틱’이 나타난 20세기보다도 조선통보가 발행된 15세기는 특히 1446년, 1448년, 1453년은 1,000년의 시간대에서 가장 추운 여름을 기록한 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조선통보 발행은 세계 기후사에서 가장 유명한 최저점을 보여 주는 시기에 발행된 화폐라는 사실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15세기 조선왕조가 건립된 시대는 지난 천년의 지구 역사에서 가장 저온 현상이 나타난 ‘겨울 15세기’(Winter 15th Century)이다.<sup>11)</sup>

〈그림 1〉에 제시된 사실을 이웃 일본이나 유럽으로 확대하여 살펴봐도 같은 사실을 전해준다. 유럽을 휩쓸은 흑사병(1346~1671)은 14~16세기 유럽 중세 시대의 가장 암울한 시기와 일치한다(Mann *et al.*, 1998, 2012). 15세기 초 동아

11) 세종 재위(1418~1450) 중 초기 기간(1417~1426)은 10년간의 연속 흉년으로 널리 알려진 기간이다. 1418년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가뭄과 홍수 등 핵전쟁 아닌 핵전쟁에 직면한다.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재위기간 가뭄, 홍수, 바람 피해, 병충해, 기근 등 자연재해 기록 건수의 통계를 잡았을 때 세종 재위기간 자연재해 기록이 총 1,794회로 1504~1544년 중종 재위기간 동안 기록된 2,262건 다음으로 많다.

시아,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1336년부터 1573년까지의 시간대를 ‘무로마치 시대’라고 한다. 이 ‘무로마치 시대’의 한복판인 15~16세기 일본은 임진왜란(1592~1598)을 일으켰으며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1,000년 동안 기근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5~16세기 일본은 유럽의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이어진 100년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이른바 멜더시안 미덕(Malthusian virtue)의 시대로 유명하다. 당시 일본은 간쇼 기근(1459~1460)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오닌의 난(1467~1477)이 일어났고, 막부가 교체된 시기이다. 결국 일본은 15세기의 수십 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한다(Streich, Philip, 2013).

이 기후 변동의 기간에 어떠한 국가체제가 등장하였으며 또한 화폐 발행의 역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15세기를 최저점으로 전후 중국 명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무로마치(Muromachi, 1336~1573) 시대는 카마쿠라(Kamakura, 1185~1333) 시대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전과 위조화폐 그리고 사주전이 통용된 대표적인 시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권력의 파멸을 가져오는 ‘大惡貨의 시대’가 바로 저운의 시대 뒤를 이어 발생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 15~16세기 ‘大惡貨의 시대’의 귀금속 함량은 92.5%에서 25%까지 떨어진 것으로 유명하다.<sup>12)</sup> 15~16세기 명나라의 화폐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도 동아시아 동전 주전의 역사를 유럽의 경험한 ‘大惡貨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식하였다. 조선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의 화폐를 연구한 폰 글라한(Von Glahn)은 15~16세기에 명나라와 일본에서 위조화폐의 유통과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사주한 동전(counterfeit and Privately minted coins)이 대량으로 그리고 장기간 유통된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화폐역사의 블랙홀’이란 명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당에서 송나라로 전환된 지난 9세기에서 11세기와 12세기에서 14세기의 중화제국은 이후 15세기에서 19세기 명과 청으로의 이행에서 아무런 역동적인 과정이나 연속된 발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블랙홀로 남은 시간대이다(Von Glahn, 1996, p. 35).

최근 유학(Confucianism)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왕조(1392~1910)에 대

12) Richard von Glahn(1996);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2003); Monetary History in Global Perspective(2003); Li, Ling-Fan(2009), p. 9.

한 역사적 평가 중의 하나는 “망해야 할 왕조”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망해야 할 왕조”라는 평가나 폰 글라한(Von Glahn)이 제기한 의문대로 당, 송에서 명과 청으로의 장구한 세월 아무런 역동적인 과정이나 연속된 발전이 없었다는 “역사학의 블랙홀”이란 문제 제기 모두 조선왕조에 대한 특히 조선통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내려진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은 지금까지 동아시아 화폐사 연구가 한국의 역사적 화폐제도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화폐사 연구에 치중해 온 경향의 산물이다. 조선왕조의 화폐 발행을 제외한 연구 경향과 결과는 경제사학 분야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낳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에서 주전된 금속화폐 조선통보를 중심으로 화폐주권의 본질적 의미인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물가안정’이란 고전적 화폐사상이 어떻게 조선왕조에서 실현되고 있었는가를 액면 가치와 내재적 가치의 비율의 장기 추이를 중심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 Ⅱ. 세종 시대 조선통보 주전 기록 분석과 3.75(grams)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종이화폐는 대부분 국가의 법정화폐이다. 종이화폐가 법정화폐인 현대 사회에서는 화폐 발행(이익) 권력(Monetary Seigniorage)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질화된다. 특히 중앙은행이 국채 등 금융상품을 매입해 통화공급을 늘리거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해 시중에 화폐를 무제한으로 투입하는 오늘날의 M4 공급 확대와 같은 양적 완화는 대표적인 화폐 발행 이익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종이 화폐와 달리 금속화폐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화폐주조 이익권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화폐라 할 수 있다.

1424(세종 6)년 10월 6일 세종실록 기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 권력이 추구하는 화폐주조(이익)권(Monetary Seigniorage)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는 기록이다. 금화, 은화, 동화로 대표되는 상품화폐(commodity money)는 오늘날 미국 달러처럼 국가의 권위로 대표되는 법정 종이화폐(fiat paper money)와 달리 발행할 때 국가만이 누리는 통화 권력, 즉 화폐주조(이익)권이 그 함량과 내재적 성분 비율에 의해 내부 통제를 받는다. 화폐주조(이익)권은 금속화폐를 발행할 때 주조를 위해 조달한 원료 금속의 함량을 지나치게 상

회하는 주화를 발행하거나 기축 금속과 다른 금속의 비중을 늘려서 혼합하는 경우 오늘날 인플레이션에 해당된다.

1424(세종 6)년 10월 6일 세종실록 기록은 정치권력이 어떻게 화폐주조권의 남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 즉 ‘주조에 적용한 표준함량과 주전 원료인 구리의 조달가격과 동전의 액면 가치 설정에 적용한 원칙’을 인지하고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매우 정치한 논리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시 구리를 사용하여 만드는 유기제품의 무게가 1근=160錢重(약 600그램)일 경우 주전할 동전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기 그릇을 국가가 구입할 때 교환하는 가격과 화폐를 주조할 때 표시하는 액면 가치와 비율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방식이다. 세종은 유기그릇 제품의 무게를 화폐의 내재적 실질적 가치로 인식하고 그 무게가 160돈중(錢重)이면 그 원료를 가지고 주전한 화폐의 명목적 가치도 160전문(錢文) 혹은 그 이하인 150전문(錢文)이어야 한다는 내부통제 표준을 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선통보 발행의 법적 근거를 정립한다.

동전은 곧 중국의 역대(歷代)에서 쓴 것이니, 청컨대, 당(唐)의 개원전(開元錢)으로 표준을 삼아 10전(錢)을 쌓아 무게 1냥중[兩重]으로 하고, 전문(錢文)은 조선통보(朝鮮通寶)라 하고, 백성들이 동(銅) 1근을 바친 자에게는 전(錢) 1백 60문(文)을 주기로 하고, 사섬서(司贍署)로 하여금 이를 관장(管掌)하도록 하고, 사사로이 주조(鑄造)하는 자는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게 할 것입니다.<sup>13)</sup>

세종은 주화의 명목 통화 가치는 ‘전문’(錢文)으로 인식하고 동전 금속의 실질 가치는 ‘전중’(錢重)으로 인식하여 그 균형원칙으로 ‘錢重如其文’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만약에 국가가 주전할 때 이 명목적 가치 문(文)이 실질적 가치 중(重)을 초과하면 ‘錢重不如其文’으로 내재적 가치와 명목 가치가 불균형을 이루어 물가 인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는 항상 이 기준대로 주전해야 한다는 표준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국가가 이 원칙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민간에서 위조 동전을 만드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국가가 먼저 원재료에 투입된 중량보다 가볍게 만들게 되면, 결국 민간의 사주전과 위조전이 유행하게 된다는 그의 주전 철학과 인식은 21세기 현 시점에서 매우 명쾌한 화폐 철학임에 틀림없다.<sup>14)</sup>

13) 銅錢乃中國歷代所用，請以唐 開元錢爲準，積十錢重一兩，文曰朝鮮通寶。民納銅一斤者，例給錢一百六十文，令司贍署掌之，私鑄者依律科罪。從之(세종실록 21권, 1423 세종 5년 9월 16일).



〈표 1〉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피츠윌리엄 박물관 소장 세종 시대 조선통보

비문	재료	연도	치수			
			세로폭 (mm)	가로폭 (mm)	무게 (g)	박물관
Chosŏn t'ongbo (朝鮮通寶)	청동	1423	25	24	3.59	피츠윌리엄
	청동	1424	25	24	3.59	피츠윌리엄
	청동	1425	24	24	3.85	피츠윌리엄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떻게 실물 화폐로 증명할 수 있을까? 〈표 1〉은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교 피츠윌리엄(Fitzwilliam) 박물관에 소장된 141~1425년 조선통보의 무게와 가로폭, 세로폭을 실측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전문의 무게는 2.69그램에서 3.85그램의 분포를 가진다. 지름은 2.4~2.5cm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 분포의 계산은 먼저 중량단위 1) 1窠=0.15grams으로 이 환산은 독일 비트포겔의 수치를 적용하였다. 2) 1分重(1.5×0.25=0.375g), 3) 1錢重(1.5×2.5=3.75g), 4) 1兩重(1.5×25=37.5g), 5) 1斤(16兩重)=37.5×16=600grams으로 계산된다. 15세기 조선통보 주전 표준은 〈표 1〉 실물 실측자료와 〈표 2〉의 주전 기록, 〈표 3〉의 만기요람 주전식으로 산출한 자료와 3.75그램을 중심으로 160/160(3.75grams), 160/150(3.99grams), 160/130(4.61grams)의 미터법 환산 중량이 나온다.<sup>15)</sup>

가로폭과 세로폭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실측은 24~25mm이다. 수치를 이제 황윤석이 전통 도량형으로 실측한 기록(徑一寸五分強, 厚一分強)과 대조하면 지름(24~25mm)과 두께(1.666mm)를 미터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표 1〉의 실측 지름과 무게 편차는 마모분의 편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 소장 조선통보 실물 측정 자료와 세종 당시 주전 기록을 비교하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2〉는 〈표 1〉의 실측 무게 ‘3.75그램’이라는 조선통보 무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세종실록과 요사 기록에서 찾아 제시한 것이다. 〈표 3〉은 만기요람 주전식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중량단위는 1) 1窠=0.15grams,

14) 위조화폐와 사주전이 유행하는 원인은 국가가 화폐 주전권을 남용하여 화폐가 가벼워질 때(輕錢幣盜鑄。而盜鑄爲禍深。人所以盜鑄)이다.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治道類貨幣.

15) 세종실록 세종 6년 1424년 10월 6일.

16) 頤齋遺藁卷之二十五, 雜著: 肅宗丙子大饑. 崔錫鼎始建請大行. 自咸鏡平安二界江邊七邑全羅海中濟州三邑嚴禁外. 餘皆一切行使. 錢約重二錢四分. 大典通編二錢五分. 今磨減一分. 徑一寸五分強. 厚一分強. 其始行也.

〈표 2〉 세종실록 조선통보 주전 기록

주전 날짜	중량 단위	미터법으로 전환식	자료원
	分重(1.5×0.25=0.375g) 錢重(1.5×2.5=3.75g) 兩重(1.5×25=37.5g) 釐=0.15grams 斤(1.5×0.25×16=600g) 錠(600g) 1(錢文)=1(枚coins) 10釐(1.5grams) <sup>a)</sup>	2.5×1.5=3.75 grams/coin	Karl A. Wittfogél and Fêng Chia- Shêng, 萬機要覽, 財用 鑄錢式
1424.08.05	160錢文=160 (枚coins) 100,000(貫)×1,000 錢文=100,000,000 (枚coins)	781,877(斤)×160 coins(16 strings or 16兩)= 125,100,320coins	(160/160)×3.75= 3.75grams/coin  세종실록 세종6년 1424년 8월 5일 2: 616
1424.10.06	150錢文=150 (枚coins)	160斤	(160/150)×3.75= 3.99grams/coin  세종실록 세종6년 1424년 10월 6일 2: 626
1425.02.08	130錢文=130 (枚coins)	160斤	(160/130)×3.75= 4.61grams/coin  세종실록 세종7년 1425년 2월 8일 2: 652

주: <sup>a)</sup> Karl A. Wittfogél and Fêng Chia-Shêng(1949), p. 181(HHS 85, 14a-16b)(포겔 179).

2) 1分重(1.5×0.25=0.375g), 3) 1錢重(1.5×2.5=3.75g), 4) 1兩重(1.5×25=37.5g), 5) 1斤(16兩重)=37.5×16=600grams으로 계산된다. 15세기 조선통보 주전 표준은 〈표 1〉 실물 실측자료와 〈표 2〉의 주전 기록, 〈표 3〉의 만기요람 주전식으로 산출한 자료와 3.75그램을 중심으로 160/160(3.75grams), 160/150(3.99grams), 160/130(4.61grams)의 미터법 환산 중량이 나온다.<sup>17)</sup>

이 기준대로 조선통보는 주전되어 물가 인상을 초래하지 않고 위조동전과 사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후에 발행된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세종은 ‘錢小直多’(실질금속은 작게 들어갔는데 명목 화폐량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이와 반대로 실질금속(실질가치, 내재적 가치)은 많이 들어가고 명목화폐(액면 가치, 명목 가치)가 그 이하로 발행되는 물가안정의 내부 통제 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은 19세기 만기요람 주전식에 등재되어 416여 년간 국가 재정통화 원칙으로 자

17) 세종실록 세종 6년 1424년 10월 6일.

〈표 3〉 만기요람 주전 표준식 식과 구성 비율 계산

	生銅	含錫	常鐵	合	
新錢一分所入	黑骨 (未正鍊)	974,666 (72.74%)	182,666 (13.63%)	182,666 (13.63%)	1,339,998 (100%)
	劣(除)				139,998 (10%)
	白骨 (實)正鍊				1,200,000
新錢十萬兩所入	54,710 (72.95%)	10,143 (13.5245%)	10,143 (13.5245%)	74,997 (100%)	
一爐五日工役	一百二十三斤一兩七錢 $123 \times 16 + 1.7 = 1,969.70$ (72.95%)	二十二斤十三兩一錢五分 $22 \times 16 + 13.15 = 365.15$ (13.5245%)	二十二斤十三兩一錢五分 365.15 (13.5245%)	一百六十八斤十二兩 2,700.00 (100%)	
一爐五日發賣	三百七十六斤十四兩三錢 $376 \times 16 + 14.30 = 6,030.30$ (72.65%)	七十斤十四兩八錢五分 $70 \times 16 + 14.85 = 1,134.85$ (13.67%)	七十斤十四兩八錢五分 1,134.85 (13.67%)	8,300.00 (100%)	
每斤價	八錢五分 (42.50%)	五錢五分 (25%)	一錢七分 (8.50%)		口文每百斤二兩式

리잡았다.<sup>18)</sup>

〈표 1〉에 제시된 15세기 주조된 조선통보를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이다. 이 실물 자료와 〈표 2〉 세종 실록에서 만기요람까지 등재된 주전식과 주전 비율 기록을 비교한 결과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조선통보에 대한 서술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계 유형원의 조선통보 예찬론은 가장 주목된다. 그는 태조와 태종 모두 주조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세종 시대 주조된 조선통보를 가장 정밀한 기술을 구사하여 주조된 통화로 본다(礪溪隨錄卷之四 田制後錄 下 錢幣, 柳子厚 朝鮮貨幣考, 1936, p. 129).

18) 『만기요람』(萬機要覽)은 1808년(순조 8년)에 서영보(徐榮輔), 심상규(沈象奎) 등이 왕명을 받아 국가(朝家와 宮家)의 군정(軍政)과 재정(財政) 원칙 및 적용 방침을 서술한 책이다.

일찍이 세종시대 주조된 조선통보를 살펴보니 지극히 정밀한 단계에 이른 것이 중국 본토의 제작보다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우수한 품질의 화폐를 주조한 것 역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훌륭한 것이 나온 것과 관계된다. 지금 만약 주전한다면 장영실과 같은 뛰어난 과학자를 구하여 주전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sup>19)</sup>

반계 선생이 세종 시대 화폐 주전의 위대성을 중국과 비교하면서 찾아낸 진리는 다름 아닌 과학자 우대이다. 반계는 세종 시대 주조된 조선통보가 지극히 정밀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중국 본토의 제작보다도 뛰어난 원인을 과학자를 우대한 세종의 정치 리더십과 그 리더십에 부응하여 당대 최고의 화폐를 주조한 장영실이라는 과학자에게서 찾은 것이다.

〈표 3〉의 『만기요람』에 명시된 주전 표준식은 〈표 4〉의 頤齋亂藁의 서술과 완전히 일치한다. 〈표 3〉의 만기요람 주전 표준식과 〈표 4〉의 頤齋亂藁의 비율,

〈표 4〉 頤齋亂藁 조선통보 상평통보 주전 함량 비교표

		三韓通寶		東國元寶			朝鮮通寶			常平通寶		
		重	徑	厚	重	徑	厚	重	徑	厚		
頤齋亂藁	世宗詳定周尺 徑八分				一寸二分五釐							
	肅宗丙子 四文重一兩						一兩百文 重二十五兩二千五百分					
	英宗中年 六文重一兩						一文重一錢六分六釐強					
	聖上元年丁酉 七文七釐強 重一兩						一文重一錢三分	徑一寸二分		厚一分弱		
萬機要覽							一文重二錢五分					

19) 嘗觀世宗朝凡造。無不極臻精妙。逾於華製。此亦係世道之汗隆也。今若鑄錢。當求如蔣英實者。專掌監造。鳩集良工。矜令致精。其助工人等亦令本工自擇。皆優其餼廩。久於其業。勿使如今請托官員。行下圖立。自上至下。節節委任責成。而以時考功。賞罰勸懲。如是則百工殫力。久效其能。豈有不精之理。 礪溪隨錄卷之四 田制後錄 下 錢幣。

즉 新錢을 주조할 때 투입되는 원료 비율은 미정련 상태인 흑골에서도 생동과 함석과 납의 비율은 각각 黑骨(未正鍊) 974,666(72.74%), 182,666(13.63%), 182,666(13.63%), 1,339,998(100%) 劣(除) 139,998(10%), 白骨(實)正鍊이 되어 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표 3>에 제시된 바대로 18~19세기 실학자 저술 『頤齋亂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이재 황윤석의 실측 수치이다. 그는 실측 기준을 重(무게), 徑(지름), 厚(두께)로 분류하고 그 수치를 제시하였다.

### Ⅲ. 조선통보와 명나라 화폐와의 금속 성분 국제 비교

동서양을 막론하고 로마에서 중국의 역대 황제 권력에 이르기까지 정치 권력은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화폐의 전면에 자신의 얼굴 모습이나 통치 연호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동서양 모두 화폐는 당대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위치에 놓이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려와 조선에서 발행된 화폐는 동국통보, 삼한통보, 해동통보, 조선통보 등 항상 국호를 전면에 주조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영국의 두 대학 한국 동전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고려와 조선 시대 주조된 동전을 다른 지역 동전과 액면 표시를 비교하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고려(918~1392)와 조선(1392~1910)의 화폐는 액면에 당대 정치권력자의 얼굴이나 연호를 새기지 않고 오직 국호 ‘三韓’, ‘東國’, ‘海東’, ‘朝鮮’을 새기거나 ‘常平’과 같은 화폐 철학을 표시한 특징을 갖는다. 흔히 조선 후기에는 상평통보뿐만 아니라 당백전과 당오전이 주전되고 통용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오전, 당백전은 후면의 표시이고 전면은 모두 상평통보로 새기어 있어서 조선 시대 금속화폐는 단 두 종류 조선통보와 상평통보만 주전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화폐라는 사실을 웅변하며 오늘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면 국호 표시는 1924년 게오르그 프리드히 내프의 저서 『화폐의 국가 이론』(*State Theory of Money*)의 기저를 이루는 화폐 사상과 전혀 상반된 화폐 철학이 고려와 조선 내내 시현된 것을 의미한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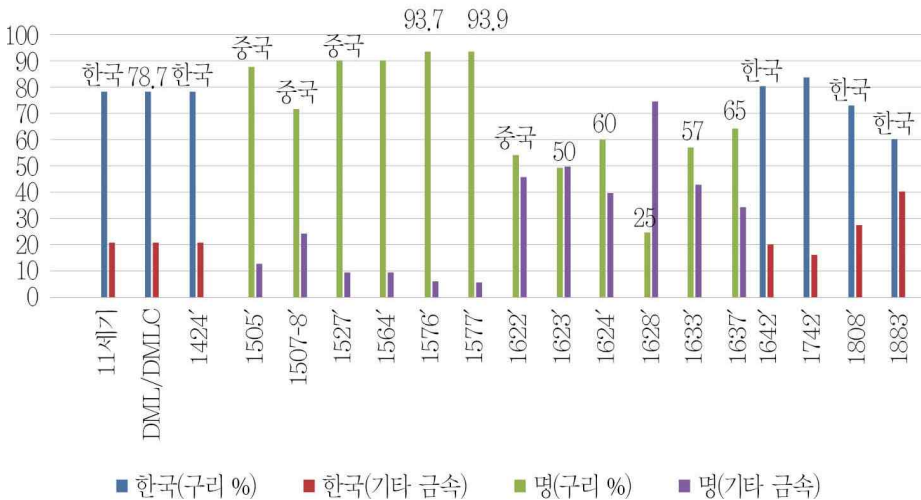
게오르그 프리드히 내프가 주장한 것처럼 동서양을 불문하고 화폐는 국가 정

20) Georg Friedrich Knapp *State Theory of Money*(1924), pp. 1~3.

치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보편적 통념이다. 정치 권력의 주체 개념인 ‘Sovereign’은 지배자, 우두머리(highest, supreme, chief) 개념으로서 소프라노(Spanish Soberano, Italian Soprano)에서도 금화는 그 우두머리의 상징이다. 그러나 조선통보는 정치 권력의 상징인 우두머리 인물 대신에 국호를 명각하였다는 점에서 서양의 화폐사상과 전혀 다른 화폐 사상을 나타낸다. 특히 15세기 주조된 조선통보는 중세 봉건 권력이나 절대왕정이나 군사력을 수반하는 서구 유럽의 정치 권력이 추구해 온 것과 전혀 상반된 진정한 화폐 권력(monetary power)의 모범을 제시한다.

〈그림 2〉는 금속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알려주는 정보, 즉 주화의 금속 함량 구성 비율과 그 장기 추이를 가지고 중국과 국제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2〉를 통해 조선통보는 이수광(1563~1628) 당대 17세기에도, 박지원(1737~1805)의 18세기에도, 이유원(1814~1888)의 19세기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던 통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는 반계 유형원의 역사적 평가가 정당했음을 실증한다. 유형원은 조선통보를 한의 오수전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여 동아시아 화폐사에서 가장 견고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통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그림 2〉 한국 대 중국의 구리 동전 금속 함량 구성 비율



자료: Jung Eun Choi and Masahiro Kitada(2010), pp. 30~35; The Japan Institute of Metals; Richard von Glahn(1996), p. 147; Sejong shillok, Sejong 6(1424) 08.05. 2: 616; Sungchǒngwǒn ilgi, incho19(1641) 09.20; Man'gi yoram(萬機要覽), chaeyong (財用), chujǒnshik(鑄錢式); Sok Taejǒn(續大典, 國幣用銅錢條).

〈그림 2〉는 중국 명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무로마치(Muromachi, 1336~1573) 시대와 비교하여 조선 전기의 화폐제도는 동아시아의 표준이라 할 정도로 견고한 제도가 성립된 시기라는 점을 알려준다. 기존 일본의 카마쿠라(Kamakura, 1185~1333) 시대에 대한 화폐사 분야에서의 평가가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는 중국 명나라의 해금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명나라가 구축한 세계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 중국 해안가와 타이완 서일본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밀수를 통한 비공식 무역이 횡행하면서 사주전과 위조지폐가 광범위하게 통용된 시기이다. 일본의 15세기 무로마치 시대는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나라 시대(710~784)와 헤이안 시대(794~1185)를 거쳐 중세사회로 인식된 카마쿠라 시대를 거쳐 무로마치 시간대이지만 〈그림 2〉처럼 견고한 화폐를 주조한 역사적이 경험이 없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군사력을 중심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이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중국인과 조선인 박지원이 나누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조선통보도 당대 화폐와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 연암은 중국 광둥인으로부터 대뜸 “조선 황제의 연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황제 건륭(乾隆)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국 광둥성에서 온 사람은 조선을 황제국으로 인식하고 연호를 물어본 것이다. 박지원이 스스로 “조선은 1780년 현재 중국 청 황제 건륭 연호를 사용하는 작은 변방”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는 박지원의 대답에 놀라며 “조선은 중국과 대등한 천자국 아닌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다. 이에 박지원은 더욱 의아해하면서 천하 세계 만국은 모두 청나라의 황제만을 받들고 있고 하늘과 땅이 대청국이며 해와 달이 건륭을 받들고 있고 조선은 그중의 한나라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내주고 만다. 그러나 광둥인 주 주부(周主簿)는 “조선통보(朝鮮通寶)는 한(漢)의 오수전(五銖錢)보다도 더 잘 주조되었을뿐더러, 돈 중에는 가장 오래된 돈이기 때문에, 귀신이 붙어 점치는 돈으로 쓴다”는 사실을 알려준다.<sup>21)</sup>

21) 貴國皇上元號云何。小邦奉中國正朔，那得紀元，當今是乾隆四十五年。貴國豈非中國對頭的天子麼，萬方共尊一帝，天地是大清，日月是乾隆。周主簿曰。朝鮮通寶。高於漢五銖錢。最久通神。故爲占錢。余曰。何爲最久通神。周曰。是箕子時錢。中原人若見之。當以爲寶。惜乎不能得帶來。余曰。此世宗時所鑄也。箕子時安有楷字。宋董道錢譜。載海東蕃錢凡四樣曰。三韓重寶。三韓通寶。東國重寶。東國通寶。而朝鮮通寶。譜不載焉。推此可知其非久錢也。전보(錢譜)란 중국의 남조(南朝) 시대 양(梁)나라 고환(顧烜)이 편찬한 책으로, 역대에 유포된 화폐들의 모양과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당(唐)나라의 봉인(封寅), 송(宋)나라의 동유(董道) 등이 증보하였으나 대부분 실전되었고, 지금은 동유와 명(明)나라의 동홀(董通)이 증보한 책이 각기 1권씩 전해지는데, 명나라 이전에 유통된 화폐 2백여 종의 문양(文樣)과

연암과 중국 광동인과의 조선통보 논쟁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매우 큰 흥미를 자아낸다. 또한 개항기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회원들이 품었던 수수께끼의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다. 연암을 찾아온 중국 광동인은 조선통보(朝鮮通寶)는 한(漢)의 오수전(五銖錢)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돈 중에는 가장 오래된 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귀신이 붙어 점치는 돈으로 사용한다고 전해준다. 그때 광동인은 연암에게 “조선통보는 고조선(高朝鮮) 때 돈으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의당히 커다란 보물로 삼을 텐데”라고 말하자 박지원은 조선통보는 세종 때 주조한 돈이며 고조선 때 해자(楷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반박한다.<sup>22)</sup>

박지원은 송(宋)나라 동유(董道)가 지은 전보(錢譜)를 근거로 중국 광동인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동유의 전보에는 고려의 돈이 삼한중보(三韓重寶), 삼한통보(三韓通寶), 동국중보(東國重寶), 동국통보(東國通寶)만 기재되어 있고 조선통보는 실리지 않은 것으로 조선통보는 고조선의 통보가 아니라 세종 시대 장영실이 주조한 조선통보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이 대화는 끝난다.<sup>23)</sup>

따라서 조선통보를 둘러싸고 박지원과 광동인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교환한 것에서 조선통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개항기 이유원은 『임하필기』(1871)를 집필하였는데 조선 국초부터 사용된 통화는 조선통보가 당시까지 통용되고 있었던 것을 증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삼한전(三韓錢) 이수광(李睟光) 『전보(錢譜)』를 살펴보니, 삼한중보(三韓重寶), 동국통보(東國通寶), 동국중보(東國重寶), 해동통보(海東通寶), 해동중보(海東重寶), 조선통보(朝鮮通寶) 등 모두 여덟 가지가 실려 있다 하였으니,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전화(錢貨)가 있었다. 지금도 조선통보는 아직 세간에 남아 있는데, 대체로 국초(國初)에 주조(鑄造)한 것이다.<sup>24)</sup>

이유원의 기술과 연암의 기술을 종합하면 조선통보는 18세기는 물론이거니와 19세기 말에도 여전히 조선에서 통용된 화폐라는 사실이 부각된다. 17세기 실학자 지봉 이수광 선생도 동시대 정리한 동전은 모두 국호를 새기고 있으며 동시

설명 등이 실려 있다. 『隋書 卷33 經籍志2』.

22) 周主簿曰 朝鮮通寶 高於漢五銖錢 最久通神 故爲占錢 余曰 何爲最久通神 周曰 是箕子時錢 中原人若見之 當以爲寶 惜乎不能得帶來 余曰 此世宗時所鑄也 箕子時安有楷字.

23) 宋董道錢譜 載海東蕃錢凡四樣曰 三韓重寶 三韓通寶 東國重寶 東國通寶 而朝鮮通寶 譜不載焉 推此可知其非久錢也.

24) 임하필기 제22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대 회자된 전보(錢譜)에는 동아시아에서 유구한 세월 존속해 온 조선통보가 모두 소개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sup>25)</sup> 성호 이익 선생은 조선통보가 민간의 들과 밭에서 다수가 발굴되는 것을 삼조선 시대 동전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6)</sup>

이유원도 고려국(高麗國)의 전 4품은 ‘해동통보’(海東通寶), ‘해동중보’(海東重寶), ‘삼한통보’(三韓通寶), ‘동국중보’(東國重寶)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수광을 인용하여 고려 때까지 발행된 동전을 모두 8종류로 보고 그중에 조선통보가 포함

〈표 5〉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조선통보 발행 시기 논쟁표(17~19세기)

	三韓通寶 三韓重寶	海東通寶 海東重寶	東國元寶 東國通寶 東國重寶	朝鮮通寶
海東繹史 韓致滌	高麗	高麗	高麗	高麗
林下筆記 李裕元	高麗	高麗	高麗	
星湖僊說 李瀾	高麗	高麗	高麗	三朝鮮
靑莊館全書 李德懋	高麗	高麗	高麗	朝鮮錢 (槓狷朝鮮)
和隱集	高麗	高麗	高麗	
修山集	高麗	高麗	高麗	箕子錢
晤堂集	高麗	高麗	高麗	箕子錢
燕巖集	高麗	高麗	高麗	箕子錢
洛下生集 李學逵	高麗	高麗	高麗	衛氏朝鮮
沙厓先生文集 閔胄顯	高麗	高麗	高麗	古朝鮮
晤堂集 李象秀	高麗	高麗	高麗	箕子錢
松沙先生文集 奇字萬	高麗	高麗	高麗	箕子錢

25) 芝峯類說 卷十九 服用部, 金寶 按錢譜, 載三韓重寶, 東國通寶, 東國重寶, 海東通寶, 海東重寶, 朝鮮通寶共八樣云. 我東之有錢亦舊矣, 今朝鮮通寶, 尚存於世, 蓋國初所造也. 高麗別有朝鮮通寶.

26) 李瀾 星湖僊說 星湖先生僊說卷之四 萬物門古錢 民間田野中多得朝鮮通寶皆銅鑄要是三朝鮮時所行也.

된 것을 밝히고 있다. 이수광(李睟光)은 『전보』(錢譜)를 살펴보니, 삼한중보(三韓重寶), 동국통보(東國通寶), 동국중보(東國重寶), 해동통보(海東通寶), 해동중보(海東重寶), 조선통보(朝鮮通寶) 등 모두 여덟 가지가 실려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편찬된 전보 종류들 예를 들어 동유의 『전보』와 홍준의 『천지』 및 『삼재도회』(三才圖會), 『서청고감』(西清古鑑) 등 여러 서책을 참고해 보면, 고려에서 주조한 돈에는 삼한통보, 삼한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조선통보 등의 이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표 5>에 요약되어 있듯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조선통보의 발행 시기와 그 실체에 대해서 고조선과 15세기 세종대를 놓고 갑론을박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통보를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과 외지인의 관찰 기록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적 성분 분석과 실측자료를 종합하면, 조선통보는 고조선 때부터 존재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폐이고 15세기 세종 때 장영실에 의하여 복원되어 19세기 말까지 중국과 조선에서도 통용된 화폐이며 최근까지 일본에서도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통화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15세기 조선왕조(1392~1910)에서 주조된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중심으로 동시대 중국의 명나라와 조선왕조가 공통으로 추구한 '유교국가'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특히 조선왕조가 화폐주조이익권(Seigniorage)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를 조선통보의 액면 가치와 내재적 가치, 그리고 주조비용과의 차이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 주조된 조선통보를 중심으로 한국 고전문헌 속의 주전 기록을 찾아 비교·분석하고 금속화폐의 성분을 분석한 수량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화폐사 연구에서 조선통보만이 갖는 시대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명나라의 화폐주조와 조선왕조의 화폐주조를 비교하여 조선은 상대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에는 명목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큰 불량 주화는 발행하지 않았음을 제시하여 조선왕조가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유지의 불변의 법칙인 안정적인 통화 기준을 모범적으로 확립하였음을 규명하고 기준 중량 이하의 화폐주조이익권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 특히 15세기 세종 시대는 사기와 위조의 시도가 한 번도

없었고 결론적으로 그레삼의 법칙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제시하였다.

## 참 고 문 헌

- 孫穆鷄林類事(12<sup>th</sup>) 徐兢高麗圖經(1123) 金宗瑞鄭麟趾高麗史(1451, vol. 1-139)  
 金宗瑞高麗史節要(1452, vol. 1-35) 金史(1261)安鼎福東史綱目 董邦達西清  
 古鑑 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1784) 宋史(1343) 李肯翊燃藜室記述(1778,  
 59) 芝峰芝峯類說(1614, 20) 韓致滄海東繹史(19<sup>th</sup>)李祘弘齋全書(1799).
- 강형태·김규호·허우영·평미양광, “조선통보의 구조원료와 산지 연구(I),” 『보존  
 과학회지』 16, 2004, 15~20.
- 李正守, “中世 日本에서의 朝鮮通寶 流通—日本の 出土備蓄錢을 중심으로—,” 『釜  
 山史學』 39, 2000, 147~184.
- 전성호, 『조선후기 미가사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_\_\_\_\_, “빌라이폰 솜사몬 은행없는 도시 개성 금융망 연구(1887-1945) I,” 『한  
 국경제연구』 제41권 제1호, 2023, 73~96.
- 松島悰·黒井治徳, “朝鮮通寶及び十錢通寶の鑄造年代に就て,” 『考古學雜誌』 10-  
 8, 日本考古學會, 1920, 449~450.
- Choi, Jung Eun and Masahiro Kitada, Microstructure and Impurities of  
 Bronze Coin, Headongtongbo, Fabricated in the Korai Period(11th  
 Century), *Journal of Japan Institute of Metals*, Vol. 74, No. 1, 2010,  
 30~35.
-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 ldez, *Global Connections and Monetary  
 History, 1470-1800*, Aldershot, UK: Ashgate Press, 2003.
- Georg Friedrich Knapp State Theory of Money, London: Macmillan 1924.
- Ichihara, M., “Coinage of old Korea,”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 Part 2, 1913, 45~74.
- Jun, Seong Ho, “Monetary authority independence and stability in medieval  
 Korea: the Koryŏ monetary system through four centuries of East  
 Asian transformations, 918-1392,” *Financial History Review*, Volume  
 21, Issue 3, 2014, 259~280.

- Li, Ling-Fa, "After the Great Debasement, 1544-51: Did Gresham's Law Apply?," London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 126, 2009.
- Mann, M. E. and J. Park, "Global-scale modes of surface temperature variability on interannual to century timescale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99, 1994, 25819~25833.
- \_\_\_\_\_, Joint spatiotemporal modes of surface temperature and sea level pressure variability in the northern hemisphere during the last century, *Journal of Climate*, 9, 1996, 2137~2162.
- Mann, Michael E., R. S. Bradley, and M. K. Hughes, "Global-scale temperature patterns and climate forcing over the past six centuries," *Nature*, Vol. 392(6678), 1998, 779~787(<http://doi.org/10.1038/33859>).
- \_\_\_\_\_, *The Hockey Stick and the Climate Wars: Dispatches from the Front Lin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 Richard von Glahn,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Streich, Philip, "Civil Wars, Sengoku Era(1467-1570)," *Japan at War: An Encyclopedia*, edited by Louis G. Perez, ABC-CLIO, 2013, 53~55.
- Sukawa, Hidenori, "CURRENCY IN EARLY CHOSEON KOREA: ISSUANCE, PRINCIPLES AND CONTROVERS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Volume 6, Issue 1, January 2009, 65~85.
-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Philadelphia, March, Section VI Introduction, 1949, p. 181.(HHS 85, 14a-16b)(포켓 179).
-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Co-edited with Paul Jakov Smi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 Wittfogél, Karl A. and Fêng Chia-Shêng, *History of the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Volume 36, 2012.

옥스퍼드 대학(<https://hcr.ashmus.ox.ac.uk/coin>).

케임브리지 대학(<http://www.fitzmuseumcam.ac.ukdept/coins/>).

[Abstract]

## Rethinking Chosŏn T'ongbo in the 15th Century: Focusing on Seigniorage

Seong Ho Jun\*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hosŏn t'ongbo(朝鮮通寶) minted during the 15th century in Confucianism Chosŏn(1392~1910).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hosŏn Dynasty exercised the Seigniorage by looking 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ace value and intrinsic value of Chosŏn Tongbo. In this paper, we seek to find and analyze minting records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compare them with quantitative data analyzing the components of metal coins. This paper compares the coinage of the Ming Dynasty with that of the Chosŏn Dynasty and suggests that Chosŏn relatively did not issue bad coins whose nominal value was greater than the intrinsic value during the 15th century, which is an immutable law of maintaining a sustainable economic system, and suggests that it did not pursue powerful seigniorage below the standard weight. In conclusion, the Chosŏn King Sejong era, present a historical lesson that there was never an attempt at fraud or forgery, and Gresham's law had no place.

**Keywords:** Gresham's law, seigniorage, confucianism, bronze coin, King Sejong

**JEL Classification:** N2

---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Professor, Tel: +82-31-730-8175,  
E-mail: mingoo@aks.ac.kr